

#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 파견대학 정보

대학명	시안외사대	기숙사비	755,000원 /한 학기
파견지역	산시성 시안시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분할납부( )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7.08.27.~2017.12.17	기타비용	기숙사 방 카드 보증금 50위안 / 학교 출입카드 보증금 50위안

## ▣ 파견자 정보

성명		학과	식품영양학과
성별		학년	3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8. 01 . 16 .

파견자 : ( 서 명 )

# 대학 현황 보고서

##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처음 가면 분반테스트를 진행한다. 테스트는 필기시험과 선생님과 1대1 회화시험으로 이루어져있다. 다음날 시험 결과와 분반 결과가 나오고 책을 구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수업이 바로 진행된다. 한국처럼 오리엔테이션은 따로 하진 않고 바로 수업을 진행한다. 1반부터 5반까지 다섯 개의 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5반이 제일 어려운 반이다. 1반은 기초반으로 읽기쓰기, 말하기, 듣기 3과목을 배우고 2반~5반은 1반과 같은 세 과목과 HSK수업까지 총 4과목을 듣는다. HSK수업은 시험은 보지 않고 수업만 들게 된다. 분반 결과가 나오고 원한다면 반을 바꿀 수 있다. 아래 반으로 내려가는 것 보다 위에 반으로 올라가는 것이 비교적 쉽다. 하지만 웬만하면 그냥 들어보라고 한다. 하지만 HSK의 경우 쉽게 옮길 수 있다. 2반은 4급, 3·4반은 5급, 5반은 6급 수업을 듣는데 3반인데 5급 수업이 어렵다면 HSK만 4급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간, 기말 시험을 보게 되고 시험 전에 선생님들이 범위와 유형 등을 알려주신다. 듣기 수업의 경우 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듣기 연습을 하고 선생님이랑 함께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설명해주고 같이 외우면서 그 단어에 대한 예문을 들어주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중요 단어나 숙어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예문을 만드는 숙제나 녹음을 해서 선생님에게 보내는 숙제도 하였다. 말하기 수업도 책을 위주로 진행하였고 한 단원이 마칠 때 마다 단원 전체와 그 앞 단원 단어시험을 보았고 금요일 수업 중 한 시간은 우리나라 '간장콩장' 과 같은 중국어 발음연습을 하였다. 읽기쓰기도 기본적으로 책을 위주로 하고 단원마다 나오는 문법을 선생님이 예문을 들어주며 설명하였고 매 시간마다 숙제와 단어시험을 보았다. 숙제와 단어 외우는 것은 많이 어렵지 않아서 금방 할 수 있었는데 이것들을 통해 복습을 확실히 할 수 있었다.

##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서안인사대는 중국 산시성 서안시에 위치하였고 셴양·시안 국제공항에서 택시로 40~50분 정도 소요된다. 중국 대륙 정 가운데 위치하여 건조하고 위에 쪽에 사막이 있어서 공기가 좋진 않다. 비와 눈이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라 했는데 17년에는 비도 많이 내리고 눈도 많이 내렸다. 5월 말부터 더워지는데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겨울에도 꽤 춥다고 들었는데 17년에는 한국보다 많이 따뜻하였다. 9월 중에는 기온이 계속 오락가락 해서 반팔과 긴팔을 계속 번갈아 입었다.

학교 기숙사에서 걸어서 15분 정도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서안 내 번화가에 나가기 편리하다. 놀거리가 많은 중루나 샤오짜이 모두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다. 한인타운인 툼뽀는 학교 동문에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20분 정도 소요된다. 학교 기숙사에서 20분정도 걸어가면 역 맞은편에 '화룬안지아' 라는 대형 마트가 있어서 생필품이나 식재료, 과자 등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마트건물 1층에 맥도날드도 있고 맥도날드 건너편에 KFC도 있다.

학교 북문에서 왼쪽으로 5분 거리에 미니소가 있어서 싸고 질이 괜찮은 생필품을 살 수 있고 북문 오른쪽에 바로 중국 유명 프랜차이즈 음료가게인 코코가 있어서 항상 맛있는 음료를 사먹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북문 근처에 음식점과 다양한 가게들이 있어서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된다.

학교 서문에는 길거리 음식이 많은데 모든 음식이 다 맛있기 때문에 꼭 가길 바란다. 그리고 과일가게도 있어서 신선한 과일을 싸게 사먹을 수 있다.

지난 학기 중에 교내에 완공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마트와 네일샵 등이 있고 그 건물 근처에 3개 정도의 미용실과 과일가게, 빵가게, 음료가게 등이 있어서 굳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정보

비 용	755,000원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호텔 건물 사용 (통금 없음) 방 카드 보증금 50위안		
주요사항	방간 방음이 정말 안 됨 방마다 다르지만 변기, 세면대 등 수압이 약함 대부분의 콘센트가 잘 안됨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기숙사 내부에서 방문을 봤을 때 사진이다.  
사진 상으로 문 왼쪽에는 옷장이 있고 오른쪽은 화장실이다. 옷장은 옷걸이에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개서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신발장이 없어서 옷장 맨 밑 칸을 신발장으로 사용했다. 옷장은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화장실에는 변기와 샤워기와 세면대가 있다.  
화장실도 일주일에 한번정도 청소해주고 쓰레기통은 매일 비워준다. 수압이 툭툭날수 있지만 참고 그냥 살만하다. 방마다 수압이 다 다른데 우리 방은 변기수압이 약해 자주 막혔다.



방 안쪽에 책장이 있다. 책장 맨 위에 베게가 있는데 기숙사 베게가 너무 더러워서 밖에서 20위안 주고 사서 사용했다. 책장 말고도 수납공간이 많아서 먹을 것과 세제 등을 놔뒀고 밑에 수납장은 사용하지 않았다.  
처음 기숙사에 들어가면 책상, 옷장, 식탁 등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물티슈로 한 번씩 다 닦고 사용하였다. 학기 중에도 먼지가 많이 쌓여서 수시로 닦아줬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방 안에 있는 가구를 배치도 맘대로 옮길 수 있는데 우리 방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침대 사이에 수납장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였다. 2주에 한번 침대시트와 베개와 이불 커버를 교환해준다. 밑에 사진이 교환해 준 날 찍은 사진이다. 딱딱 2주를 주기로 갈아주진 않는다. 다른 방은 침대를 다 창문 쪽으로 밀고 책장 쪽에 돛자리 같은걸 깔고 사용하는 방도 있었다. 입식이라서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기 때문에 바닥이 상당히 더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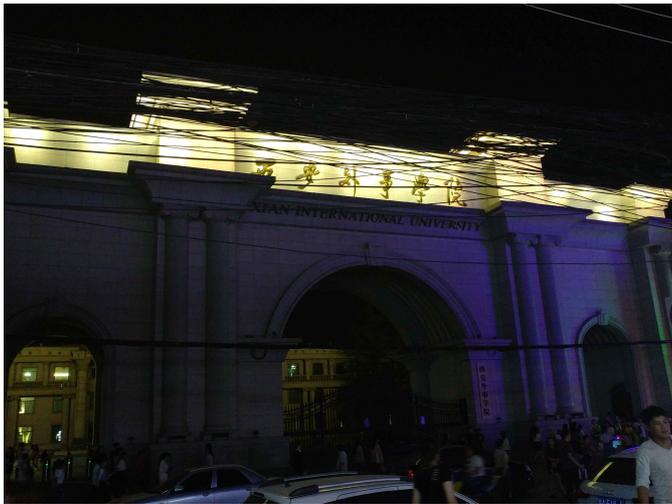
기숙사 바로 맞은편에 운동장이 있다. 그 운동장에서 찍은 기숙사 사진이다. 기숙사 앞쪽에 운동장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열지 않아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선 반대쪽으로 들어가야 했다. 중국은 9월이 1학기 인데 개강 후 신입생은 무조건 2주간 군사훈련을 받는데 여기 운동장에서 훈련을 받아서 개강 후 2주간 상당히 시끄럽다. 아침 6시부터 훈련을 시작한다.



기숙사에서 나오면 이렇게 자전거들이 세워져 있는데 'OFO' 나 'MOBIKE' 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빌려서 탈 수 있다. OFO는 한 시간에 위안을 지불하면 되는데 학생 인증을 하게 되면 한 시간에 5마오를 지불하면 된다. 아무 곳에서 자전거만 보이면 빌려서 타고 반납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세워놓으면 되는 시스템이라서 상당히 편리하다. 날씨가 좋을 때는 빌려서 타고 놓고 택배를 찾거나 밥을 사러 갈 때에도 편하게 빌려서 타고 다녔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이게 학교 복문이다. 지하철을 타러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할 때 사용하는 문이고 아마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지나다닐 문이다. 한 저녁 6시 정도 되면 복문 맞은편에 야시장이 열린다. 볶음밥이나 튀김 오징어고지 구이 등등 많은 메뉴를 파는데 맛있으니 꼭 먹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바로 맞은편에 베이커리가 있는데 가격은 그리 싸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아서 아침대용으로 많이 사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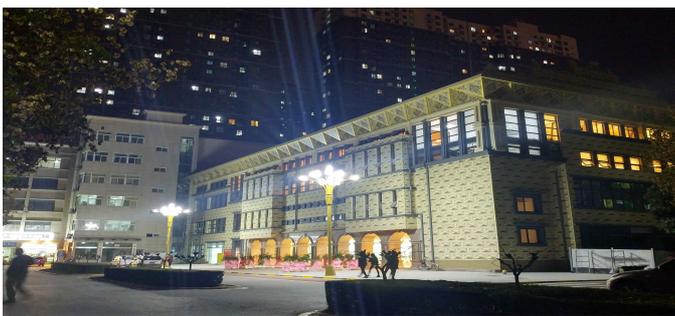
위에 사진은 도서관 5층에 있는 KCC 이다. KCC는 한중 문화교류 센터를 의미한다. KCC 맞은편에는 미국 교류인 ACC가 있다. 수업은 도서관 4층에서 듣는다. 기숙사부터 도서관까지는 8분정도가 소요된다.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보통 수업 10분전에 출발했다.



아래 사진은 교내 식당 중 하나인 1찬탕이다. 교내에는 3찬탕 까지 있는데 모두 2층 건물이다.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고 맛있고 싸고 가까워서 찬탕에서 밥을 가장 많이 사먹었다.



위에 사진은 체육관과 야외 테니스, 탁구장이다. 체육관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고 수영장은 일회 권과 20회권 연간 권으로 구매할 수 있다. 중국 대학교는 체육 수업이 있어서 지나가다보면 테니스 수업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수업 뿐 아니라 취미로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를 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아래 건물은 이번학기에 새로 지어진 건물로 마트와 네일샵 등이 있고 아마 다른 가게들도 많이 입점할 것 같다.

## 교환학생 파견 수기

교환학생을 가기 전 많은 걱정과 기대를 품고 갔었다. 걱정과 다르게 막상 가 보니 너무너무 좋았다. 제일 많이 걱정했던 음식과 언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물론 맞지 않는 음식도 있었지만 입에 맞는 음식도 많이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의 경우 중국어는 대학에 와서 교양수업으로 들었던 것이 끝 이었다. 가기 전에 공부를 하고 가려 했지만 결국 그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되었다.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밥을 사러 가는 것이 너무나 걱정되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또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중국에 간지 일주일 쯤 되었을 때 이번 학기를 중국에서 교환학생으로 보내는 중의 목표가 생겼다. 정말 작은 목표이지만 음식을 주문할 때 항상 메뉴판을 가리키면서 ‘이거 주세요.’ 라고 주문했는데 메뉴판을 읽고 말로 주문을 하는 것 이었다. 초반에는 메뉴판을 읽을 수 없어서 항상 가게 앞에 서서 핸드폰 사진을 켜서 하나하나 써가면서 검색해서 주문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목표가 생긴 뒤로는 검색 한 것을 메모 해 놓고 틈틈이 보면서 외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차츰 시간이 지나서 눈에 중국어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메뉴판을 읽는 것이 가능해졌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거 아닌 목표였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서는 정말 꼭 이루고 싶은 목표였다. 중국생활이 중반을 지나갔을 때부터는 어설피게라도 가게 직원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메뉴판을 읽고 말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교환학생이라는 것이 놀고자 하면 정말 한없이 놀 수 있다. 실제로 교환학생들 중에서 매일 수업도 안 나오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 하지만 이왕 중국까지 왔으니 교환학생을 오는 학생들이 사소하게라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교환학생 중에 두 번의 여행을 다녀왔다. 두 번 다 한국인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서안에서 가까운 곳을 다녀왔다. 중추절 때는 시막이 있고 양고기가 유명한 은천이란 곳을 다녀왔고 11월에는 중국 4대 고성(古城) 중 하나인 평요고성을 다녀왔다. 은천은 서안에서 가깝고 지난 교환학생들도 많이 가는 여행지여서 다녀오게 되었는데 은천은 중국에서 최초로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인 곳 이라고 한다. 그리고 평요고성은 선생님에게 서안 근처에 갈만한 여행지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알아보고 다녀왔다. 교환학생들 중에서 나와 같이 수업을 들은 4명이 처음 평요고성을 갔는데 우리가 다녀온 후로 많은 교환학생들이 평요고성을 다녀왔다. 서안에서도 많은 중국인들도 만날 수 있지만 여행을 다녀옴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 특히나 내가 다녀온 두 곳은 모두 한국인들이 거인 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좋았던 것 같다. 같은 중국이라도 문화나 생활양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교환학생 중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추천한다.

KCC에서 주관하는 교환학생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엄청 추천할 만 하진 않다. 그래도 이를 통해서 전혀 알 기회가 없는 교환학생과도 친해지게 되었고 중국인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다. 같은 조였던 한 한국어과 중국인 친구와는 파트너는 아니었지만 친해져서 그 친구 과제도 도와주고 같이 밥도 먹고 학기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먼저 연락이 왔다. 물론 이 프로그램 말고도 중국인 친구를 사귄 기회는 있지만 가장 확실한 기회이고 같은 반 이외의 다른 교환학생들과도 친해질 기회인 것 같다.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면 한국인들이랑은 친하게 안지내고 중국인만 사귄 거야’ 라고 생각 하는 학생들이 꽤 있을 텐데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학생들도 정말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만 고집하기 보다는 두루두루 친해져서 다른 학생들도 즐거운 중국 교환학생 생활을 하다 왔으면 좋겠다.